

모여라 마고인! 함께하자 마고인!



2014

마산고등학교총동창회

MASAN HIGH SCHOOL

12월

회장:고호곤 / 상임부회장:이병태 / 사무총장:장봉석

마음에 없는 말이라도 자꾸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마음에 없는 말이, 그렇다고 실없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착해 하지는 않아도 그 언저리에 나름대로 익스큐스는 있는 말이라는 것이지요.

나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살 만큼 살았으면 좋겠다. 살 만큼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인가에 대해서는 저마다의 생각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맞춘다면 100세 이상까지의 기대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살 만큼'은 수치상의 수명으로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바뀌 말해 오래 살고 싶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삶은 주어진 것일 수도 있고, 가꾸어 나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틀 속에서 어떻게 영위되는 것인가는 운명이라는 굴레의 몫입니다. '살만큼의 삶'도 따지고 보면 운명의 예속물인 셈이지요.

나이도 60 중반을 코앞에 두었으니, 수명과 관련해 나도 살만큼은 살았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별로 잡히는 게 없습니다. 좀 영성하게 보낸 세월이고, 험거운 인생이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 삶, 내 인생의 프레임을 좀 챙겨볼 필요를 느낍니다. '살만큼의 삶'을 내 의지로 재단해보자는 것이지요.

우선 삶의 태도가 순응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느 정도 몸에 뻘었습니다.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 식의 강인함과는 애당초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정(淨)히 하고 죄를 포함해 마음에 누가 되는 짓을 삼가야 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도 이에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안시(慈眼施)의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견딜만하다고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그것은 모를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산을 많이 다니는 것은 물론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등산을 다분히 정신건강 쪽에 무게를 둡니다. 술이 변수입니다. 그러나 나는 술을 멀리할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역설 같지만, 술은 내 인생의 자양분일 수도 있다는 자기최면을 항상 걸고 있습니다.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無恒産, 無恒心이라고 孟子가 얘기했듯, 일정한 벌이가 있어야 떳떳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기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일 것 같습니다. 최소한 내 앞가리개가 될 정도의 그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 헤아려보면 그리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기대기는 싫습니다. 골똥하게 궁리해야 할 대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나의 '살만큼의 삶'에 대한 밑그림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善萬物之得時 (무릇 모든 것은 때를 얻어 가는데)
感吾生之行休 (나의 생은 갈수록 휴폐해져 감을 느끼네)

늘어가면서 쌓이는 것은 벼룩보다는 주변에 대한 신세뿐이라는, 좀 썰렁 적이고 수세적인 차원에서 이런 생각과 말을 이어가고 있지만, 주변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더 오래, 더 풍족하게 살고 싶은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나는 살만큼의 구체적인 나이를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요즘 추세에 비해 많은 나이가 아니라는 것쯤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만하고 욕 들을 얘기지만,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주어진 인생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좀 수세적이긴 합니다만, 그러면서도 그 뒷안길에서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 외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말이 생각을 이끌고, 생각은 방향을 바로 잡아줄 것입니다. 나의 이 바람이 생각대로 되



29회 김 영 철
전 부산매일신문 정치부장
전 교수신문 편집위원
전 안동중재위 산가사심원



1. 2014 마산고총동창회 한마음큰잔치

- 일시: 10월 26일 09:00~16:00
- 장소: 모교운동장
- 참석인원: 900여명 (동문 및 동문가족 700명, 지역어르신 200명)
- 동문단체장 및 인사: 안상수(23회)창원시장, 안홍준(27회)국회의원, 김충관(29회)창원부시장, 김선유(31회)진주교대총장, 박성호(34회)국회의원, 박종훈(38회)경남도교육감, 김진국(38회)농협경남본부장, 윤한홍(40회)경남부지사, 이우용(35회)재부동창회 사무총장, 백이승(41회)재부동창회 체육부장
- 총동창회 한마음큰잔치는 9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공우열(3회,90세) 원로 선배님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다양한 행사와 학교 주변 지역 어르신(200여명)을 모시고 국악연주, 노래자랑으로 흥겨운 하루를 값지게 보냈습니다. 예년에 비해 많은 동문 및 동문가족 (700여명)이 참석해서 마지막 줄다리기까지 다함께 즐기므로서 동문화합과 모교사랑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종합우승: 9조(19회, 29회, 39회, 49회, 59회) 총상금 2,400,000원
 - 최다참가조: 9조
 - 최다참가 기수: 29회 (56명)
- 한마음큰잔치에 현금 및 물품을 찬조해주신 동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 많이 받으십시오.

2. 2014 마산고 수능대박 기원제



- 일시: 11월 8일 09:30~15:00
- 장소: 무학산 정산
- 참석자: 모교 1학년 재학생 300명, 교사 35명, 동창회 동문 50명, 학부모 20명
- 재학생(1학년), 교사, 동문, 학부모 합동 산행으로서 재학생의 체력과 협동심을 증진시키고 동문과 학부모님들과 함께 무학산 정상에서 당년도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수 있도록 다함께 기원제를 올리며 마음을 다해 산신령님께 잔을 올리며 절하는 모습이 짝합니다. 3만여 동문과 함께 좋은 성적 기원합니다.

3.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출범

- 창원 시민 화합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 제시와 함께 주요정책 심의 및 자문 역할을 하는 최고 정책 자문기구인 균형발전위원회가 출범했는데 마고 동문 두분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수구(25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이주홍(29회) 법무법인화우 대표변호사 두분이 선임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4. 5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 일시: 11월 22일(토) 18시
- 장소: 창원 호텔
- 참석인원: 250여명 (가족동반)
- 향후 총동창회를 이끌고 나갈 핵심 기수 53회가 벌써 졸업 20년이 되었습니다. 가족동반 모임으로서 졸업 당시 담임 11명의 은사님을 모시고 꽃다발과 함께 가족들이 보는 앞에 큰절을 올리는 모습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분의 은사님도 감동의 눈물을... 사회생활의 중추적 역할을 잘 소화해서 더더욱 발전하고 본인과 학교의 명예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5. 장학재단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개최

- 일시: 11월 25일 19시
- 장소: 총동창회 사무국
- 2015년도 장학금 지급 예산 편성 및 장학금 지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중 금리가 계속 인하되어 이자 수입이

학교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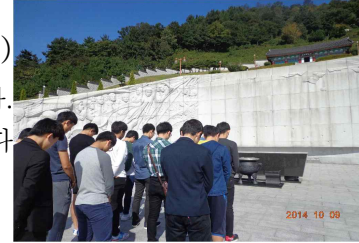
1. 자율형공립고 자매학교간 친선체육대회(창원축구센터, 10.07)



자율형공립고 자매학교(마산고-창원중앙고) 간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7일 화요일 창원축구센터에서 각 학교 2학년 학생들끼리 축구, 농구, 줄다리기 등의 종목으로 친선체육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회째를 맞은 자공고 교류전을 통해 지역 중심 자율형 공립고로서의 위상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2. 나라사랑 동아리 현장 체험활동(국립 3.15민주묘지외, 10.09)

2014년 10월 9일 나라사랑 동아리는 국립 3.15민주묘지를 다녀왔습니다. 참배단 참배-유영봉안소 참배 -야생화단지, 시비감상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3. 2014년 직업인 초청 특강 실시 (1학년대상, 10.27)

2014년 10월 27일(목) 18:30-20:00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진로선택, 직업선택의 준비과정, 현장의 모습 등 열정적인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아주 뜻깊은 시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지역동창회 소식

1. 지역동창회 송년회 일정

- 재경동창회 : 12월 30일 라마다 호텔 19시
- 재울산동창회 : 12월 25일 MBC컨벤션 18시
- 재대구동창회 : 12월 10일 상락식당 19시
- 재양산동창회 : 12월 4일 어가초밥 19시
- 재함안동창회 : 12월 5일 드릴연수원 19시
- 재통영동창회 : 12월 16일 해원횃집 19시



임원회비 및 찬조금 접수 현황

○ 자문위원

서상조(6회) 20만원, 강창수(7회) 20만원, 고금석(11회) 20만원, 박정호(14회) 20만원, 최장락(16회) 20만원, 신호일(18회) 20만원, 김복식(19회) 20만원, 광희승(19회) 20만원, 전용수(20회) 20만원, 김한경(21회) 20만원, 박필근(21회) 20만원, 조남규(21회) 20만원, 김조일(22회) 20만원, 신정현(22회) 20만원, 조성제(25회) 20만원, 이용균(27회) 20만원, 박화옥(28회) 20만원

○ 총동창회장

고호곤(29회) 5000만원

○ 협의위원(29회)

황양규 100만원, 윤경 100만원, 김옥천 100만원, 정현호 100만원, 정지호 100만원, 김종무 100만원, 안우식 100만원, 최병인 100만원, 윤병고 200만원, 조의재 선물용소주 1500세트+20만원, 박창목 50만원, 정이주 20만원, 최용배 20만원, 이근포 20만원, 감홍조 20만원, 전상경 20만원, 최안석 20만원, 강호돈 20만원

○ 부회장

박노민(38회) 60만원, 조성래(40회) 60만원, 안창환(42회) 60만원, 이명규(44회) 60만원, 안현석(48회) 30만원

○ 이사

안정환(50회) 20만원, 이정환(50회) 20만원, 노윤경(52회) 20만원

찬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관리 하겠습니다.

■ 임원회비 및 찬조금은 총동창회 계좌에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마산고등학교총동창회 경남은행 507-07-0116832

마산고동문장학재단 기금출연

- 이성갑(14회) 100만원 ○ 이성호(24회) 300만원 ○ 박중철(40회) 200만원
- 43회동기회 1000만원 ○ 진윤희(47회) 1000만원 ○ 33회동기회 1000만원

기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학기금으로 소중히 관리하겠습니다.

■ 장학기금 출연 계좌 안내

경남은행 554-35-0001730 재단법인 마산고동문장학회

동문기업 안내

승환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진윤희(47회)

편 집 실

○ 회보에 게재 또는 광고를 원하시면.. 원고를 항상 받고 있습니다.

문의 및 협의 : 총동창회 사무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419 대홍빌딩 4층

문의☎: (055) 242-7871 FAX : (055) 242-7872 E-mail : mago1936@naver.com

facebook : www.facebook.com/magolove